



2021학년도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학교장 인사말

○○을 유익하게 쓰지 않는다면 ○○이 우리를 ○○해 버립니다

영화어린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

“지금 몇 시인데 그걸 하고 있니? 어휴, 시간 좀 아껴라!”

와 같은 말을 자주 하시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좀 귀찮고 어떤 때는 솔직히 듣기 싫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교장선생님도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영화어린이들에게 한번 잔소리꾼(?)이 될게요.

잔소리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보면 한자나 영어사전을 살펴서 궁금한 점을 알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희미하게 알던 내용을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한자를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은 時(때 시)와 間(사이 간)입니다.

즉 풀이하면

‘어느 순간에서 어느 순간까지의 사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 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정신 차리고요.

時 자는 日(해 일) 자와 寺(절 사) 자가 합쳐졌어요.

해(태양)는 아침에 떠서 움직이다가 저녁에 저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간다. 아니면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죠.

다음은 영어를 말해 볼까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의미가 팍팍 다가옵니다. 시작합니다.

시간은 Time이죠. 아주 쉬우니까 모두 다 알죠?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Time의 형용사형인 Tim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Time과 아주 비슷해 보이죠? 뜻은 ‘시기적절한, 때맞춘’입니다. 그 속에는 ‘기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입니다.
Time의 부사형인 Betimes가 있어요. ‘때맞춰, 늦기 전에, 일찍, 곧’ 즉 시간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휴우~ 정리합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한글과 한자 그리고 영어로 풀어서 모두 합쳐보면 묘하게 공통적인 의미가 보입니다. 뭘까요?

‘시간은 아주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영화어린이 여러분!
점점 자라면서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봅니다. 즉 시간은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면서도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시간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현재밖에 모릅니다. 동물처럼 현재만 생각하며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바라는 꿈이나 희망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롭고 똑똑한 영화어린이 모두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방학은 다른 해보다 일주일 정도 더 길니다.
책 많이 읽기, 운동 열심히 하기, 여행 다녀오기 등 계획을 잘 세워서 생활하기 바랍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밤늦게까지 게임만 하다가 늦잠을 자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은 너무나 재빠르기 때문에 순간 포착을 잘해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시간을 유익하게 쓰지 않는다면 시간이 우리를 낭비해 버립니다.

2021년 7월 16일 여름방학 하는 날



영화초등학교장 김 한 청

